

# HORIZON

차세대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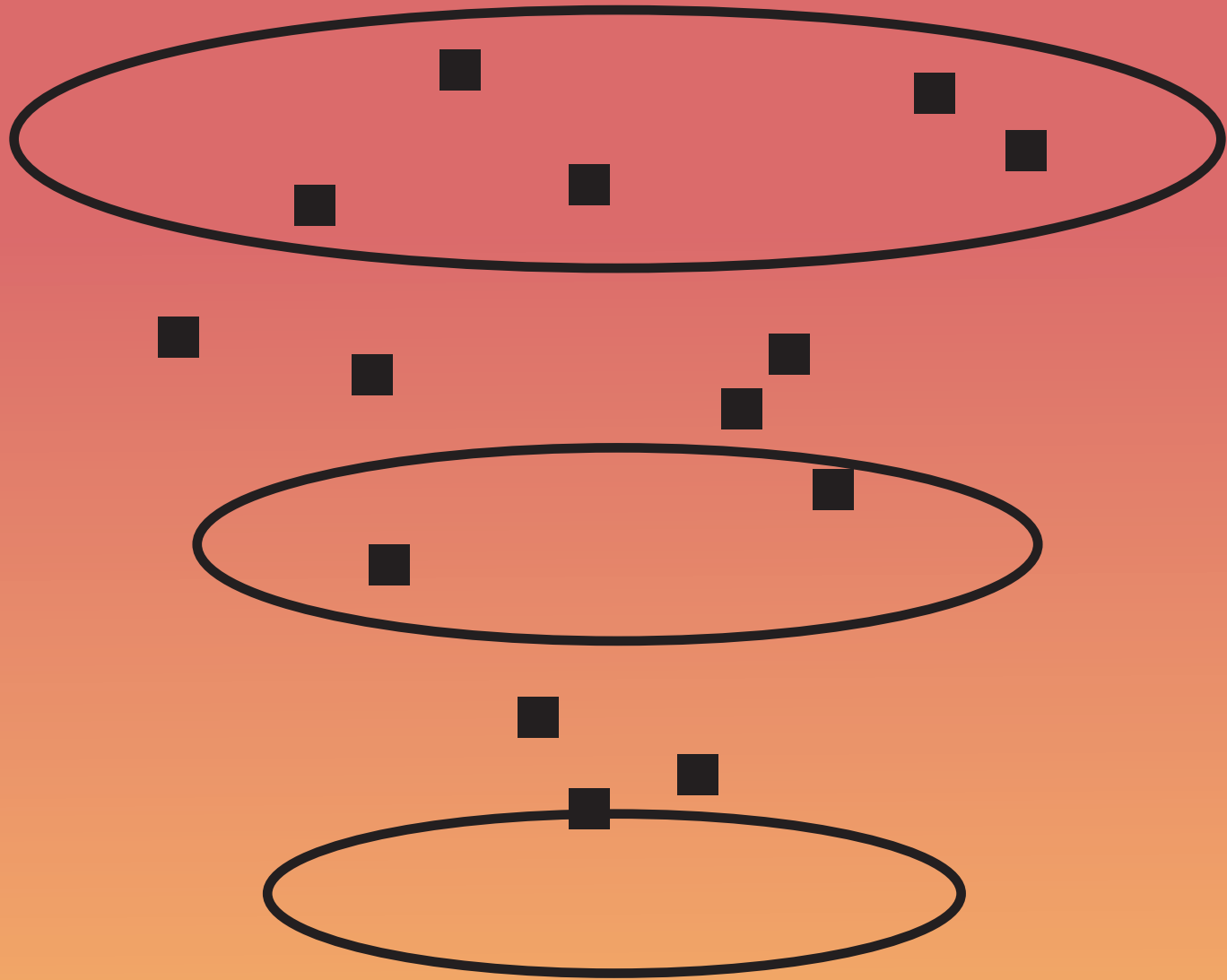


우리는  
한계를 넘어 일어난 여성들입니다

<b>OVERVIEW</b>	<b>/ 5</b>
<b>VISION&amp;MISSION</b>	<b>/ 7</b>
<b>HERizon 2024 Timeline</b>	<b>/ 8</b>
<b>HERizer: 함께 한 사람들</b>	<b>/ 10</b>
<b>HERizon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b>	<b>/ 12</b>
<b>HERizon 참여자 소감</b>	<b>/ 16</b>
<b>HERizon 프로그램 운영결과</b>	<b>/ 36</b>
<b>HERizon 기관 소개</b>	<b>/ 38</b>

HERizon은 서울YWCA와 주한미국대사관이 협력해 강릉, 광주, 부산, 서울, 제주, 평택의 다양한 직업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다양성과 포용성의 리더십을 키우고, 직업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확장하기 위해 구성된 10회기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GROWTH



4  
—  
5

# 리더십 확장을 통해 성장하는 여성들

## OVERVIEW

HERizon은 대한민국 여성들의 사회적·경제적 성장을 위해 서울YWCA와 주한미국대사관이 협력해 진행한 여성 청년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서울YWCA는 1922년 창립 이래 여성의 권리 증진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기독교민여성단체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미국과 한국의 모든 시민, 특히 여성에게 경제적, 사회적 기회가 열려 있는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며 이것이 한국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ERizon은 여성의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SOLIDARITY

6  
|  
7

# 신발이 더러워지길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들



## VISION & MISSION

HERizon은 이 세상 속에서 도전을 겁내지 않으며, "신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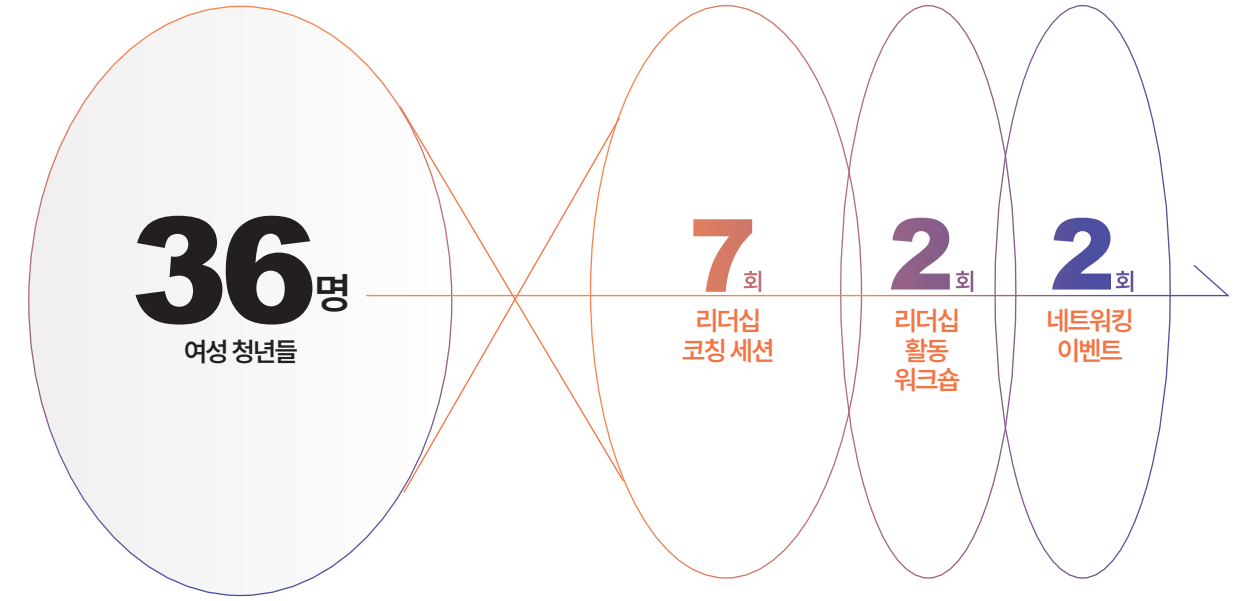
HERizon은 더 나은 리더십으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나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리더십에 집중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전과 성장은 지역 여성들과 연대 속에서, 지역을 넘은 전국의 여성들과 소통 속에서 이루어 집니다.

HERizon은 한계를 넘어 일어난 여성들을 의미합니다. HERizon은 내가 가진 리더십의 힘을 이해하고, 포용과 다양성의 리더십으로 유리천장과 유리절벽을 깨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여성들과 함께 합니다.

# HERizon 2024 Timeline

- 36명의 여성 청년들의 리더십 성장 시간

-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한 리더십 코칭 세션, 리더십 활동 워크숍, 네트워킹 이벤트



5월								17			
4월						15 - 제주	17 - 부산	19 - 평택	22 - 서울	23 - 강릉	26 - 광주
3월				13	27						
2월			1 - 평택	5 - 제주	14	28					
1월	19	23 - 서울	24 - 강릉	30 - 부산	31 - 광주						
	1강 HERizon 오픈닝 세리머니 다양성과 포용성의 리더십	2강 자기효능감 진단 및 전문가 피드백	3강 변화의 길을 찾아서 I	4강 변화의 길을 찾아서 II	5강 지속 가능한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I	6강 지속 가능한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II	7강 리더십 스킬 및 전략 멘토링 워크숍	8강 내 삶의 균형잡기 : 워라벨, 번아웃 관리 스킬	9강 글로벌 리더십과 공존	10강 여성 리더십 네트워킹 HERizon 클로징 세리머니	

# HERiz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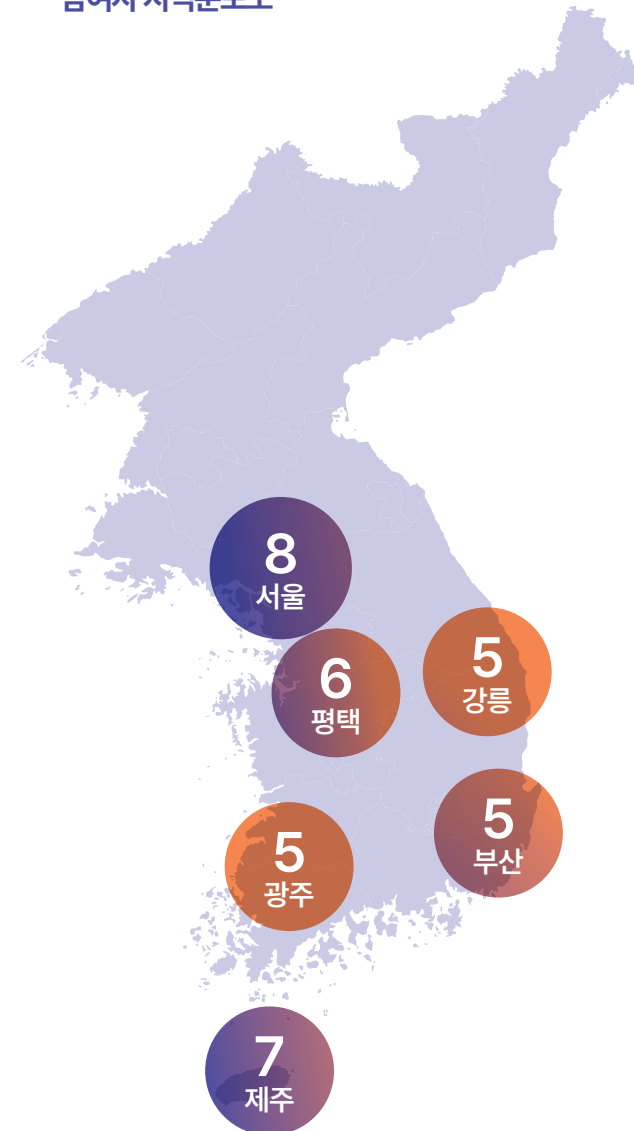
## : 함께 한 사람들

- 강릉, 광주, 부산, 서울, 제주, 평택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25-35세 여성 청년 3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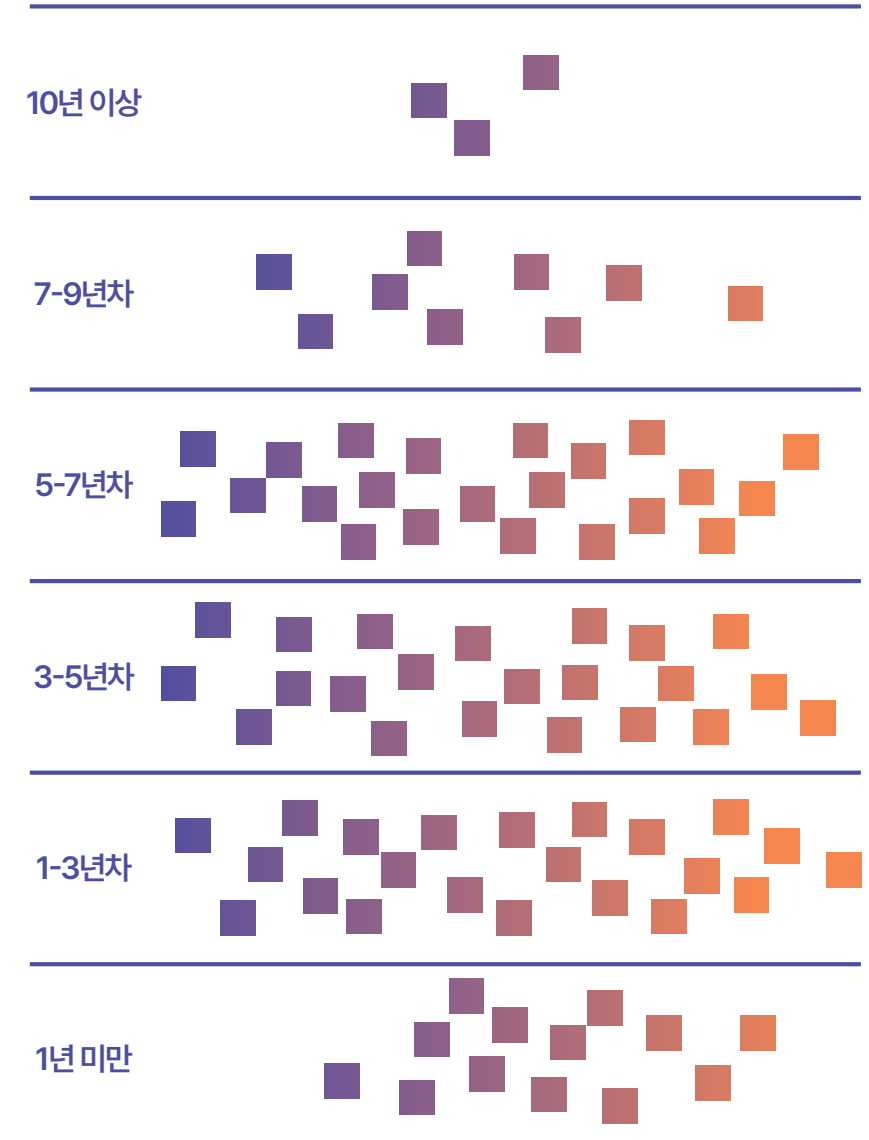
참여자 직업군



참여자 지역분포도



참여자 경력분포도



# HERizon

##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 여성 청년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리더십 코칭 세션 7회  
리더십 활동 워크숍 2회  
네트워킹 이벤트 2회

### Opening Ceremony 다양성과 포용성의 리더십

**1강 송진순**  
이화여대 외래교수  
1.19(금) / 서울 ADH

**내 능력에 대한 확신,  
자기효능감을 확인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 자기효능감 진단 및  
전문가 피드백

**2강 신지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심리전문가  
1.23(화) / 서울  
1.24(수) / 강릉  
1.30(화) / 부산  
1.31(수) / 광주  
2.1(목) / 평택  
2.5(월) / 제주

### 변화의 길을 찾아서

: 직업 현장을 젠더 관점에서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대응 방법 찾기  
: 유리천장을 깬 여성리더와의 만남

**3강 최김하나**  
인권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2.14(수) / 온라인

**4강 김승주**  
지마린서비스 일등항해사  
2.28(수) / 각 지역 아메리칸 코너



### 리더십 스킬 및 전략 멘토링 워크숍

**7강 이자연**  
씨네21 기자  
4.15(월) / 제주  
4.17(수) / 부산  
4.19(금) / 평택  
4.22(월) / 서울  
4.23(화) / 강릉  
4.26(금) / 광주

### 지속 가능한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리더십을 통한  
조직 적응, 갈등 해결  
: 조직 내 갈등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

**5강 양세진**  
소셜이노베이션그룹 대표

**6강** 3.13(수) / 온라인  
3.27(수) / 각 지역 아메리칸 코너



### 내 삶의 균형잡기

: 워라벨, 번아웃 관리 스킬

**8강 신지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심리전문가  
5.17(금) / 서울 ADH

### 글로벌 리더십과 공존

**9강 부연리**  
주한미국대사관 글로벌정책 과장  
5.17(금) / 서울 ADH

### 여성 리더십 네트워킹 Closing Ceremony

**10강** 5.17(금) / 서울 ADH





## 1강 다양성과 포용성의 리더십 | 송진순 이화여대 외래교수

한국은 전 세계 146개국 중 '성 격차 지수' 105위(2023)로, 여성의 정치적·경제적 대표성이 매우 낮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수직적 리더십이 아닌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수평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수평적 리더십은 희생과 헌신이 아닌 리더와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서로의 지평을 넓힌다.

## 2강 자기효능감을 확인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 신지수 강남세브란스병원임상심리전문가

자기효능감은 직장인 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도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향해 언어적으로 설득하고, 긍정적 정서 반응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3·4강 변화의 길을 찾아서 I | 최김하나 인권정책연구소 연구원 · II | 김승주 지마린서비스 일등항해사

성평등 리더십은 여성 리더라고 해서 반드시 담보되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성찰과 실천으로 확보된다. 성차별이 없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차별, 여성혐오 발언에 동조하지 않기, 직장 내 성평등 관련 이슈에 관심 갖기 등을 함께 실천해 볼 수 있다.

## 5·6강 지속 가능한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I · II | 양세진 소셜이노베이션그룹 대표

직장 내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주제들을 직면하기란 쉽지 않다. 이때 상호이해지향 대화와 무비판적이고, 수용적인 대화 방식은 조직 내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 7강 미디어와 함께 하는 리더십 스킬/전략 멘토링 워크숍 | 이자연 씨네21 기자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허니제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지소'와 같은 캐릭터는 '갈등을 회피하지 않는 리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리더'다. 미디어 속 다양한 리더상에 나의 리더십을 대입해 보는 전략은 자신의 리더십 성향과 방향성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

## 8강 내 삶의 균형 잡기: 워라벨, 번아웃 관리 스킬 | 신지수 강남세브란스병원임상심리전문가

번아웃은 인간 영혼을 침식하는 마음의 출혈 상태로 리더십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의 지속을 어렵게 한다. 번아웃 관리를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친절할 태도를 보이는 '자기 친절', 자신의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여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의 태도가 필요하다.

## 9강 글로벌 리더십과 공존 | 이부연 주한미국대사관 글로벌정책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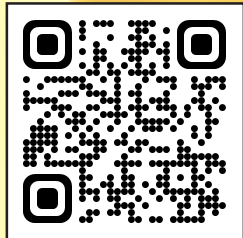
한국 여성은 자기 스스로를 리더라고 여기는가. 조직에서 세입자가 될 것인지, 집 주인이 될 것인지 규정하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렸다. 조직과 사회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규정들을 제안하는 시도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10강 네트워킹 이벤트: 참여자 스피치

허라이즌을 마무리하며 참여자 전원이 공유한 리더십 이야기는 짧지만, 힘이 있다. 리더십에 대한 고민, 성장과 변화, 자신에 대한 인정과 타인을 향한 이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각자의 이야기에 담긴 힘은 나눌 때 더 큰 영향력으로 서로에게 공명한다.

# HERizer

HERizon 참여자 소감



더 많은 이야기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김예원

강릉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

'HERizon:차세대여성리더십교육'을 수료한 김예원입니다. 교육 기간 동안 다양한 리더십에 대해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즐겁고 유익했습니다. 강릉에서 함께 수강하신 분들도 따뜻하고 정이 많으셔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모두 좋았습니다.

긴 교육 기간 동안 함께 해주신 서울YWCA와 이지은 간사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교육을 수강하게 되어 리더십을 키울 수 있었고, 더불어 좋은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HERiz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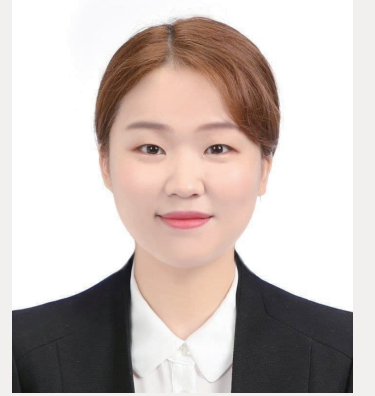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서울YWCA, 주한미국대사관, 강릉 아메리칸 코너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허라이즌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연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현장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멋진 선배들이 있기에 힘도 많이 얻었습니다. 여성, 리더십, 차별과 평등, 저에게도 존재하는 편견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나'라는 존재까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차세대 여성 리더분들과 만나며 자극을 받기도 하고, 응원을 주고 받으며 함께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며, 여성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강화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강릉은 바다가 가장 유명합니다. 자부심이기도 하고 마음을 여유있도록 만들어주어 참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요. '바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힐링이 되기도 하고 응원도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멋지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습니다. 비록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부족한 것들이 많을 수 있지만 존재만으로도 멋지다는 것! 그리고 이 멋짐에 더하여 자신의 삶을 멋지게 꾸려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니 참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참여할 때만 해도 차세대 여성 리더라는 말에 제가 참여하는 것이 맞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나니 '우리는 이미 어디서든 작게든 크게든 리더이고 리더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2기, 3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며 앞으로 더 많은 차세대 여성 리더들을 위한 기회가 마련될텐데 모두 함께 멋지게 성장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바다같이 포용력 있는 리더가 되길 기원합니다!

강릉의 바다같은 포용력을 지닌  
멋진 리더로 나아가길



김지윤

강릉  
착한산업 대표



안서영

강릉  
강원특별자치도 주무관

허라이즌에 참여하면서 각자 분야에서 성공한 여성 리더분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허라이저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정체성과 리더십에 대한 고민에 대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값진 경험을 할 기회를 제공해주신 서울YWCA 및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조이 사쿠라이 부대사님이 오프닝 세레모니에서, "Don't be afraid of your shoes dirty. 여성 리더로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분야의 롤모델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선구자가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여성 리더십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약간의 뚝기와 뻘뻘함'이라는 한 허라이저님의 대답이 제 머리를 세게 한대 쳤습니다.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롤모델을 찾아 동기부여도 받고 싶고 앞으로의 비전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롤모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선구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할 줄도 알아야 하며 보편적인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만 해서 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워크숍을 통해 지금까지 사회적인 여성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되었을 때 남성보다 더 남성적인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부연 외교관님이 토론시간에 '한국 여성은 스스로를 글로벌 리더라고 생각하는지, 조직에서 스스로를 세입자와 집주인 중 어떤 포지션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질문은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입지와 조직 내에서 저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클로징 세리머니를 마치고 다른 허라이저들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워크숍 내용이나 워크숍 참여 후기를 보고, 학습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이 콘텐츠를 생산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 멋지고 이런 태도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디언은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날이 아니라 삶의 깨달음이나 영감을 얻은 날을 생일로 기념한다고 합니다. 허라이즌에 참여하신 허라이저들 모두 깨달음과 영감을 얻어 늘 새로 태어나는 날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선구자가 되길 겁내지 않고 나의 영향력을 키우겠습니다



엄지혜

강릉  
전) 공기업 서무

허라이즌에 참여하며 전국 각지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즐거웠습니다. 이 만남들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시야를 넓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좁은 세계에 머물러 있었지만,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영감과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리더분들의 강연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언젠가는 그들처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강연은 제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제 목표를 더욱 명확하게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트워킹 이벤트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스피치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모든 분들을 저의 롤 모델로 삼고 싶을 정도로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좀 더 활기차지고 열정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이후에도 계속 강릉 분들과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라이즌을 통해 얻은 모든 경험과 인연은 앞으로 나아갈 제 인생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시야를 넓히는 인생의 자산이 되는 경험



장재연

강릉  
학원 교사

주한미국대사관 ADH(American Diplomacy House)에서 열린 허라이즌 오프닝 세리머니에서 허라이저 분들을 처음 만난 뒤로 다양한 강연을 들으며 성장했다고 느꼈는데 벌써 프로그램이 끝난다고 하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고 저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짐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해가 저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1월을 맞이했는데 그 시작을 허라이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오랜 수험생활로 방향하고 무기력해지기 일쑤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 허라이즌에 참가하게 돼서 그 틀을 깨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 때 진행된 '5개월 후에 미래 내다보기' 활동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사람들과 있을 때 긴장을 덜 하고 싶다고 적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직 후자는 조금 어렵지만 새롭게 시작한 일에서 활력을 얻고 저만의 리더십을 발휘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말로 풀어내기 어려웠지만 불편한 부분들을 허라이즌을 통해 여성주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소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곳에서 만난 허라이저 분들과 소중한 강연을 제공해주신 분들을 떠올리며 여성주의 관점에 중심을 두고 저 자신을 잃지 않고 나아가려 합니다. 제 자신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자기확신을 높일 기회를 준 허라이즌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스스로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자기확신을 높일 기회

존중, 사랑이 담긴  
좋은 영향력으로  
건강하게 이끄는 리더

항상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부족함이 무엇인지, 어떻게 채워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제 스스로에 대해 성찰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허라이즌 여성리더십교육을 알게 되었고, 무조건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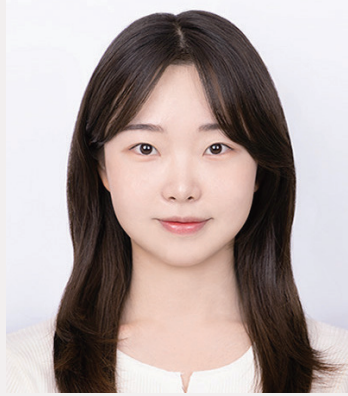
이 교육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리드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나부터 나를 설득하고 리드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계속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건강하게 리드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좋은 교육을 만들어주신 서울YWCA 프로그램 담당자 분들과 많은 교육 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류현진

광주  
간호사  
광주여성아시아네트워크 회원



**안수진**

📍 광주  
 👤 군산신흥초등학교 교사

## We Teach Who We Are

광주 허라이저이자 전북 군산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안수진입니다.

추운 겨울에 시작했던 허라이즌이 벌써 녹음이 짙어진 여름까지 진행되는 동안 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눌 수 있었는데요.

직접 만나기 어려운 멋진 여성리더분들과 강사님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계시는 허라이저분들을 통해 많은 영감을 얻고 배우고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을 때 저는 다른 사람에게 선뜻 이야기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고민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서 참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평소에 스스로 되돌아보기 어려웠던 주제들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고 듣는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따뜻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우리라는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고, 매 세션이 끝날 때마다 다음 세션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의 고민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이 유대의 순간을 생각하며 더욱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으로서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We teach who we are”라는 말입니다. 저만의 리더십을 정성스럽게 잘 가꾸어나가 미래의 리더가 될 초등학생 아이들을 잘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한다는 사실이 아쉽지만 함께 해서 좋았고 감사했다는 저의 감정을 이 자리를 빌어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점이 기쁘기도 합니다.

허라이즌을 준비해주신 서울YWCA,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알뜰하게 허라이저분들을 챙겨주신 지은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세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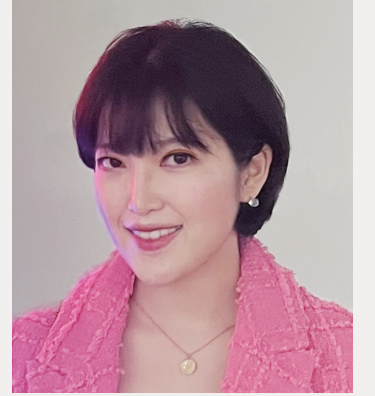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 여정을 함께한 허라이저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길에서 빛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산에서 디자이너와 문화 예술계에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알게 된 점은 중간관리자 위치까지는 여성 리더가 꽤 있는 편이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거의 모든 리더 자리를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산이 보수적인 도시라서 그런가 생각했지만 허라이즌 수업을 듣고 전국의 여성 리더들을 만나면서 이것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임을 깨달았고 앞으로 제가 유리천장을 깨뜨려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최근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초대받아 갔을 때, 시장님과 함께 VIP 좌석 10개 중 모두 남성들만 앉아 있고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광경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이 되었고 허라이즌에서 받은 교육 덕분에 저는 앞으로 저 자리 중 하나를 반드시 차지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허라이즌 여러분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한 자리 차지하는 멋진 여성 리더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여성 리더들의 노력이 모인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김감송**

📍 부산  
 👤 어도비 코리아 프리랜서 디자이너  
 부산시립미술관 도슨트

리더가 됩시다. 함께한다면 반드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수 있습니다



**김은정**

부산  
프리랜서 디자이너 / 스타트업 준비중  
전) Kakao Enterprise Product  
designer

허라이즌은 저에게 리더십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저는 리더십을 단순히 회사에서 팀원을 잘 이끌고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내에서의 역할과 성과가 리더십을 나타낸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허라이즌을 통해 저의 효능감과 자기 수용에 대해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반성의 과정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깨달음은 진정한 리더십이란 외부의 인정이나 성과가 아닌,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정의된 저만의 리더십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에게서 출발합니다. 나부터 바른 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여성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라이즌을 통해 저는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재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저에게 준 깨달음과 성장은 앞으로도 저의 삶과 커리어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나 자신에서 출발하는 진정한 리더십으로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겨울, 퇴사를 하고 제 사업을 시작해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 리더십의 기술적인 면만 생각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되어 제 생각의 범위를 넓힐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초반에는 강의와 토론이 실제 리더십 향상에 도움이 될까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 다. 하지만, 결론은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것, 저에 대해 객관적인 이해와 포용, 인정 그리고 배워가고 발전하는 것, 이 바탕을 통해 남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어디서든 리더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장을 마련해주신 서울YWCA, 주한미국대사관, 그리고 현장에서 늘 포용해 주신 이지은 간사님과 이 시간과 경험을 함께 나눈 부산팀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연결이 오늘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윤다정**

부산  
ITC영어 부산센터지점장  
전) 한빛기독교학교 교사

나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포용, 인정 그리고  
배워가고 발전하는 것



**나유경**

📍 서울  
 👤 Food and Development MA  
 University of Sussex, UK  
 석사과정 진학 예정  
 전) 굿네이버스 글로벌 파트너십  
 센터

나의 변화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도록

허라이즌을 지지해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미래의 허라이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유경입니다. Opening Ceremony에서 5개월 후의 제 모습을 상상해 보라는 질문에 "미래에 내가 더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잠재적인 리더"라고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훨씬 지난 지금, 저는 미래에 더 많이 도전하고 성장하리라는 확신을 품고 있기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허라이즌을 통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을, 여성 리더로서의 성장을 다른 참석자들과 공유하며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며 더 건강한 마음가짐을 갖고, 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고, 일을 그만두고 석사 유학이라는 삶의 큰 도전을 앞두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나는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되어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싶다는 생각을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제개발협력, 구호 활동가로서 사람과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일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나와 모든 사람 안에 있다고 믿는 것, 그러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불어넣는 것empowering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아와 빈곤, 자연 재해, 분쟁 등 구호와 개발, 삶의 현장에서 '리더'는 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가난하거나 소외되어 있을지라도, 그 곳에서 변화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허라이즌에서 제가 많은 분들께 지지와 응원을 받았듯, 저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스스로와 타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도록 돕는 조력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도 자신의 변화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라이저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고, 좋은 동료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혜진**

📍 서울  
 👤 한국오가는  
 전) 한국안센

정형화된 리더십 속에서  
 나만의 지속가능한  
 리더십을 그릴 수 있도록

HERizon is...

1. Interactive

허라이즌은 제가 막연하게 예상했던 one-way session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연사 및 다른 참가자 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모두가 대단히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로 임하셨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그 날 놓치고 있던 인사이트를 재발견하기도, 다른 의견을 더함으로써 제 생각을 발전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2. Practical

이전까지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접했던 뻘한 내용들이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 리더십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정형화된 리더의 모습에 대한 강박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것만이 정답이 아님을 많은 여성 리더들이 실제 본인의 경험담으로 증명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한 현재, 나만의 지속가능한 형태의 리더십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Burst of new opportunities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결코 방문하지 못했을 새로운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커리어 레벨의 참가자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었습니다. 허라이즌을 통해 다른 환경이지만 공통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만나서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정원지

서울  
티맥스클라우드

## 내 삶과 일에 대한 바뀐 시선이 가져오는 태도의 힘을 믿습니다

서울 허라이저 정원지입니다. 허라이즌을 신청했던 건, 단순히 '준비된 팀장'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수평적이고 유연한 IT조직에서 각자 나름의 리더십을 갖고 닦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리더십을 이야기하고자 모인 것이 아님을 첫날부터 알았습니다. 일과 일 바깥의 나를 구분하는 요즘이지만, 내면을 향하는 리더십과 타인을 향하는 리더십이 항상 구분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후로 회사에서 크고 작은 업무를 할 때 '리더십'을 떠올리며 새로운 태도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리더의 모습을 드러내며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하던 프로젝트에 동료가 생겼을 때, 직책이 없어도 사람들이 같은 곳을 향하게 하는 힘을 느낄 때가 그랬습니다. 내 삶과 일에 오너십을 가지니 많은 것이 바뀌는 태도의 힘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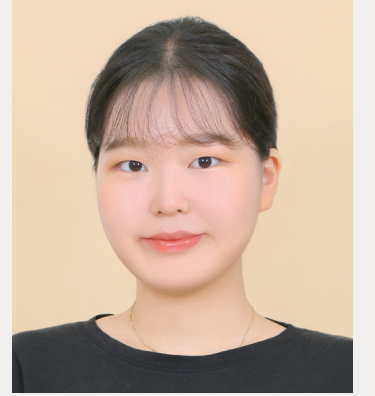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건 20대에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조직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하기 위해 어떤 톤으로 대화할 것인지 같은 건 또 다른 분석이 필요한 내 모습이었습니다. 20대 때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한동안 몰두할 주제이고, 가꿔갈 모습일 것입니다. 다양한 전문 분야를 가진 연사님들만큼 다양한 방법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공통점은, 내 안으로 들어가는 시선을 언어로 구체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함께 그린 이상향을 갖고 고민할 허라이즌 이후의 모습도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는 동료들 만나게 해 준 허라이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한 발자국 더 선명한 선택을 위한 도전의 시간

"HERizon: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차세대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효진입니다!

많은 선택들을 마주하고 있는 요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 더 현명한 선택들을 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던 그 순간! 프로그램을 마주하였고 과감히 도전하였습니다.

다양한 리더를 만나고,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 허라이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리더의 자질과 필요한 역량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함께해 준 우리 허라이즌 리더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구성원 속 리더로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주효진

서울  
다문화 사회복지 센터



**이지연**

📍 제주  
 👤 더블유엘비컴퍼니 대표 (WLB Company)  
 전) PR Agency 미디컴Medicom Senior AE

‘여성리더십’이라는 키워드에 마음이 움직여 신청하게 된 허라이즌. 연차가 쌓이면서 직함이 바뀌고 중간 관리자가 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리더십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해 갈증이 컸고, 궁금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1인 창업가가 되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내 사업을 함께할 파트너들을 찾으려 하다 더더욱 리더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깊은 고민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허라이즌이 ‘이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쌀쌀한 바람이 코 끝을 시렸던 1월 오프닝 세리머니를 시작으로 리더십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멘토링 워크숍,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스한 햇빛이 가득한 5월 17일, 클로징 세리머니와 함께 차세대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가진 목적함과 남성 위주의 강하고, 거침 없는 이미지 때문인지 ‘리더십’은 다가가기 힘든, 일하는 자의 용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허라이즌을 통해 리더십은 누구나 갖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더 나은 방향을 찾게 도와주는 소프트 스킬이자, 나다움의 컬러가 담긴 소통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리더십의 모양이 있으나 서로에게 건강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함께 성장하고 지속가능하게 나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나는 어떤 리더를 바라고, 꿈꾸고 있을까?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리더의 모습일까? 내가 그동안 거친 리더들을 떠올리고 허라이즌에서 만난 다양한 여성리더들의 이야기와 생각을 들으며 ‘리더십’을 깊이있게 생각했던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힘나게 하는 크고 작은 연결들이 가진 에너지를 보며 허라이즌에서 만난 각자의 길을 나아가고 있는 허라이즌들의 앞으로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마음을 담아 응원을 전하며 든든하고 따스했던 허라이즌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나다움의 컬러가 담긴  
 소통의 힘, 리더십



**지민경**

📍 제주  
 👤 메타플라이어

전 직장에서 시작된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다가, 허라이즌을 통해 리더십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 하였습니다. 첫날 제주에서 서울까지, 처음 가보는 주한미국대사관 ADH, 각 지역의 여성들과 만나고, 여러 연사들의 지지에 신이 났었던 일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수료합니다.

각 지역 분들과 교류와 대화를 하고, 많은 공통점을 찾고, 나눌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주한미국대사관과 서울YWCA의 도움으로 계속 네트워크가 지속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허라이즌 동기분들을 응원합니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삶이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이우주

- 📍 평택
- 👤 사업 준비 중
- 📄 전) 스타벅스 매니저

평택 허라이저 이우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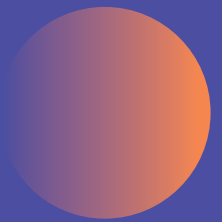
2024년 1월, 오프닝 세리머니 때 송진순 교수님의 질문이 문득 떠오릅니다. 요즘엔 온라인으로 충분히 배우고 편하게 소통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왜 5개월에 걸쳐 시간을 내어 정해진 공간에 모이려고 하는가.

저는 진로를 고민 중이었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고, '리더십'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허라이즌을 시작하고 나니, 오히려 '나'를 더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무의식적으로 정해둔 '리더의 조건'이 있었고, 스스로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평가했었는데 그 너머의 본질을 생각하며 '존재로서의 리더'를 더 인정하고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자기 자신을 역할에 맞게 리드하고 살아가야 하기에 항상 나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어떤 '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의 리더십을 만들면 된다'라는 깨달음이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강의에서 '나는 나를 리더로 인정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기 돌봄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대의 '나'와 '우리'의 미래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즐거운 여정이었습니다.

결국 리더십은 소통이고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멈추지 않고 굴러가는 세상을 악순환으로 만들지, 선순환으로 이어갈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가진 다채로운 가치를 한 방향으로 모으면 엄청난 힘이 생기고, 가능하면 이 세상에 '선순환'을 만들어 낼 선택을 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반짝이는 허라이저분들을 보면서도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허라이즌 활동 덕분에 다양한 고민을 시작하며 삶의 지평선을 넓히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성숙하고 단단한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더 나은 '우리'를 위해 그 자리를 지키시는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 인사 드립니다.

삶의 지평선을 넓히는 단단한 시선을 지닌 시간



HERizon WE ARE Rizer

# HERizon

프로그램 운영 결과

36명

참여자 선발(지원자 179명)

5개월

교육기간

31명 수료 86%

수료생 비율

10.22%

프로그램 후 자기효능감 상승률

HERizon 2024



## 서울YWCA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

#젠더평등운동 #국제운동  
#기후위기대응운동 #평화통일운동

서울YWCA는 1922년 12월 9일 창립하여 여성 인권, 청소년, 소비자 환경, 복지와 나눔, 평화운동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1만명의 여성 활동가와 함께 100개의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를 실천하며 정의, 평화, 생명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HERizon

**이지은**  
Program Manager

HERizon, 세상 앞에 발을 꼭 딛고 서있는 32명의 빛나는 얼굴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한 테이블에 앉아 직장 생활과 삶 속의 크고 작은 도전과 실패, 성취에 대해 이야기하며 성장했습니다. 서로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힘을 이끌어냈고, 우리가 걷는 길이 더 걸어볼만하다는 확신을 주고 받았습니다.  
여성의 걸음을 더디게 만드는 기울어진 운동장, 유리천장, 유리절벽 앞에서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 길을 걷는 시간이 힘겹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최봄**  
Director

처음 만날 때의 설렘을 기억합니다. HERizon 시간 내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이 놀랍고 감동이었습니다. 때로는 리더가 되고, 때로는 팔로워가 되어 상황과 필요에 따라 스스로 변화하는 경험을 한 HERizer 여러분은 이미 리더입니다.  
성평등한 공존을 위해 Why not change the World? HERizer들의 도전과 변화가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계속 걸어가요 우리 같이!

우리의 변화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함께 심장박동수를 맞추며 계속 걸어갑시다.

**HERizon**

**Don't be afraid of your shoes getting dirty**

유리천장과 유리절벽을 깨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여성의 이름,  
**HERizer**



발행인 조연신  
편집인 김양선  
기획편집 최 봄 이지은  
디자인 디자인디  
발행처 사단법인 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시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69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http://www.seoulywca.or.kr)  
발행일 2024년 7월 31일

이 보고서는 주한미국대사관 공공외교과  
'Young Women's Leadership Program' Grant로 제작되었습니다.



